

## 조선산업, 선진현장을 가다

### ② 삼성重 거제조선소



# 7만명의 삶터...경남경제 성장 동력

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앞선 품질과 기술력, 납기준수를 통한 고객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1위를 향해 한걸음을 하고 있다.

특히 고유가 환율인하 등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LNG선 및 드릴 쉽 등 고부가가치선 수주비중을 80%선까지 끌어올려 채산성 극대화에 앞장서고 있다.

◇세계 최고의 도크 회전율=100만원의 부지에 5개의 도크를 갖추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도크 회전율을 자랑한다.

도크회전이란 도크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진수수율을 말한다. 회전율

지방세 116억원...식재료값 연간 180억원 소비

LNG선·드릴쉽 등 지난해 200억불 규모 수주

이 높을수록 뛰어난 건조공법과 생산효율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. 가장 큰 제3도크는 길이 640m, 폭 97.5m, 깊이 13m로 주로 초대형선 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연간 10회전·30척 진수라는 세계 최고의 효율을 보여준다.

이같은 도크회전율을 바탕으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고가선박 선별수주전략을 구사해 LNG선 8척,

초대형 컨테이너선 15척, 드릴쉽 6척 등 200억불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.

특히 드릴쉽은 삼성중공업의 독자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. 드릴쉽은 혼상플랫폼 설치가 불가능한 깊은 수심의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형태

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9척의 드릴쉽 가운데 6척을 수주했으며,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드릴쉽 25척 중 14척을 수주해 56%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.

연도별 수주실적은 2002년 26억불, 2003년 53억불, 2004년 64억불, 2005년 77억불, 2006년 117억불로 수직상승을 거듭하고 있다. 지난해 1~9월 매출은 4조6천580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30억원보다 15.5% 신장했다.

◇식재료만 연간 180억원 소비=

삼성중공업은 연간 2천100회 지역

삼성중공업은 원유와 가스 시추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드릴쉽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. 대형 블럭을 조립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현장.

봉사활동을 펼쳐 거제시에서 '자원봉사의 중심'으로 이름이 높다. 지난

95년 삼성중공업 사회봉사단을 창단, 사내 130여개의 봉사단체를 ▲

지역봉사부 ▲시설봉사부 ▲재가봉

사부 ▲환경봉사부 ▲청소년사업부

▲장학사업부 등으로 나눠 계획적

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삼성중공업의 조선 관련인원은

현재 직영 9천200명, 협력사 2만4천

명과 가족을 포함해 7만여명에 달해

거제시 인구의 35%를 점유한다. 이

들이 사내식당에서 하루 소비하는

쌀 300가마(20kg)를 포함해 거제도

내에서 소비하는 식재료값은 연간 180억원에 육박한다.

지난해 남부한 지방세도 116억원으로, 거제시 연간 지방세의 7%를 차지하는 등 거제시는 물론 경남도

경제 전반에 혜력을 불어넣고 있다.

/이종태기자 jtlee@kwangju.co.kr

## 6억이하 아파트 중도금도

## 7월부터 DTI 규제

<총부채상환비율>

### 분양시장 파장 끊듯

을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(DTI)이 적용된다.

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%가 적용되고 있다.

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,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파장이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.

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'계계주택담보대출'에 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' 세부 시행안에서 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%를 적용하기로 했다.

당초 은행들은 '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'며 집단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왔다.

### 광주 은행장 누가될까?

### 정태석씨 등 5~6명 거론

#### 후보 인선작업 돌입

그러나 3월부터 당장 DTI 40~50%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시기와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.

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.

한편 은행들은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% 적용하고, 대출금 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%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.

또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를 적용하지 않되,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DTI 50%를 적용하도록 예의조항을 달았다.

이같은 공동안을 토대로 은행들은 자체 세부 기준안을 만들어 27~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.

/장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####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해달라

#### 상의, 건교부 등에 건의

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광주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불가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국무총리, 건설교통부장관 등 각 기관·정당에 건의했다.

상의는 건의문에서 "지속된 정

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영향 등으로 광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와 부도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는 등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"면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'해제요건을 충족한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불가' 방침을 즉시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.

/이종태기자 jtlee@kwangju.co.kr

#### 작년 광주·전남 자금

#### 펀드 등에 1조원 몰려

지난해 광주·전남지역에서만 1조 원가량의 시중 여유자금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2일 발표한 '2006년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'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·전남지역의 수익증권 판매액은 총 9천971억원에 달했다.

/장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## "혁신형 中企 715개 육성 보람"

### 장순호 광주·전남중기청장 퇴임



"지난해 2월 부임한 이래 지역 내 중소기업인들과 눈높이를 맞춰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으나, 돌아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"

21일 퇴임한 장순호 광주·전남 중기청장은 "그래도 매주 2~3개의 업체를 방문, 기업애

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을 보람으로 꼽고 싶다"고 말했다.

장 청장은 "특히 재임기간 중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, 기술 협력, 기술개발자금지원 등을 통한 715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, '이달의 자랑스런 중기인상' 발굴,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위해 밸로 뛴 기억이 새롭

다"고 덧붙였다. 그러나 장 청장은 '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놓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'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.

장 청장은 "그나마 광주·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올해 지역 인터넷 쇼핑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, 마음이 놓인다"고 밝혔다.

장 청장은 향후 1년여 고용휴직 기간을 이용,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.

/이종태기자 jtlee@kwangju.co.kr

### 중기청 차장에 나도성씨

### 광주·전남청장 박춘근씨



중소기업청은 21일 신임 차장에 나도성(53·사진) 중소기업정책본부장을 임명했다. 나 차장은 광주일고, 서울대를 거쳐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. 산업자원부 공보관, 재정

기획관, 무역부 자진흥관 등을 역임했다. 또 광주·전남 지방 중기청장에는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부품소재센터장 박춘근(48)씨가 영임돼 26일 부임한다.

/이종태기자 jtlee@kwangju.co.kr

중점대에도 격(格)이 있습니다  
한국중점대에 있는 자족화 기관을 지원합니다!

네이버 세탁기 세탁 SET 특별전